

수영센터·지질공원 플랫폼 건립 제동

중앙투자심사서 광주 신규 사업 2건 재검토 결정
신청서 보완 6월 다시 제출...AI 집적단지 등 4건은 승인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사업과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건립 등 광주시가 추진중인 주요 현안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수영진흥센터와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건립 사업에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수영장 등 인근 체육시설과의 중복성, 전문 체육인 편의를 고려한 시설 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다.
수영진흥센터는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레거시(유산) 사업으로, 오는

2023년까지 남부대에 446억원을 들여 국제 규격 경영 풀, 국제 스포츠대회 기념관, 편의시설 등을 갖춘 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은 기존 남부대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있는 만큼 시설 중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지질공원 플랫폼 사업에는 규모, 수지 전망, 시설별 공간배치, 시설-인력 운영 등 세부 계획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무등산 인근 광주 생태문화 마을을 조성 부지에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지질·문화 복합 전시관, 세계지질공원 전

자도서관,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조만간 위원회 지적 사항을 보완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6월 말로 예정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핵심 현안들은 투자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비 3939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 도로 개설(1951억원), 남구 에너지밸리~광산구 평동 3차 산단 연결 도로 개설(450억원),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실증(312억원) 등 4건 사업을 승인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사·도·시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 시·군·구의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을 중앙 의뢰 투자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친환경농산물도 드라이브 스루 구매
29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주차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승차구매 광산 친환경 로컬마켓 기획전'에서 시민들이 차량 안에서 친환경농축산물 꾸러미를 구매해 전달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코로나 극복 의료계·종교계 동참 감사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의료계의 헌신과 종교계의 동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전남대병원 국가 지정입원치료병동을 찾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찾아 격려했다. 치료현황과 예보사항을 들은 뒤 이 시장은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의료진이 현장에서 흘린 땀

방울이 값진 구슬이 돼 광주가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극복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이 우리 사회의 영웅이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리중기 목사와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스님, 천주교광주대교구 김희중 교구장,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장덕훈 교구장, 광주향교 김중재 전교 등 5대 종교단체 대표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달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와 모임을 중단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온 광주 5대 종교단체는 광주발전을 위한 중 단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종교적 신념과 특성상 집합 예배와 모임 등을 중단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도, 시민들의 건강과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종교계 지도자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광주 서구갑 송갑석

“5·18 역사왜곡특별법 제정 주력”

군공항 이전 정부·지자체 협의
울 광주 국비 예산 증액 성과
광주형일자리 등 현안 쟁길 것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유치 총력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를 ‘어제와 내일을 잇는 정의로운 도시 광주’의 원년으로 삼고, 5·18 정신을 전국으로, 세계로 알리는 대대적인 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4·15 총선 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당선인은 29일 21대 국회 첫 차례 해결로 5·18 역사왜곡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지역 8명의 당선인 중 유일한 재선인 송 당선인은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와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 광주시 국비예산을 정부안보다 2023억 원을 증액시켜 사상 최대인 2조2102억 원으로 확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송 당선인은 “지난 2년의 임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 미래산업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었다”고 되돌아 봤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의 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자중기위 경험을 갖춘 재선의 원으로서 지난 2년간 활동의 열매를 맺고 더 큰 광주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산자중기위 간사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20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5·

18 관련 법안 제정과 진실 규명 등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먼저 5·18 역사왜곡특별법 제정을 주축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 광주지역 8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내겠다”고 말했다.
호남정치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도 불태웠다.
송 당선인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 28석 중 민주당은 3석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절치부심했고, 반성하며 노력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함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고, 국난 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위기를 이겨내 왔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28석

중 27석이라는 큰 지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민주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중앙정치에서 호남의 역할을 강화하고 호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호남출신 정치인들이 중앙정치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인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광주·전남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전공대 정상 개교 등의 지역 현안사업도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현안사업인 AI와 문화전당 활성화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
그는 “현재 광주의 인공지능산업은 5년간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한데,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적어도 1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관련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AI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유망 AI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주변 투자진흥지구도 확대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한국문화기술(CT) 연구원을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송 당선인은 “정체되어 있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역구인 서구갑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번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군 공항을 조속히 이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와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방사광가속기 유치 홍보 유튜브 인기

공개 20일만에 66만뷰 넘어서
전남도가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담당위원을 알리기 위해 만든 ‘유튜브’ 홍보영상이 도민과 지역사회, 정치권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유튜브에 ‘대한민국에 노벨상을 안겨줄 호남권 방사광가속기’ 영상을 게재한 후 공개 20일 만에 조회 수 66만을 훌쩍 넘겼다.
영상은 방사광가속기의 개념과 호남권 유치의 필요성을 알기 쉽게 제시했을 뿐

만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보완해 영상의 품질을 높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남도는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범국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호남 전 공직자를 비롯 도내 334개 사회단체와 중·고·대학생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와 구글,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등에도 빠른 속도로 퍼졌으며, 2분 남짓한 짧은 영상이지만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개념을 국민과 사·도민에게 설명하고, 호남권에 들어서야 할 이유를 알

기 쉽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신 전남도 대변인은 “단기간에 이른 66만 뷰와 1700여개의 댓글은 방사광가속기의 호남권 유치를 바라는 호남 사·도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며 “후보지 발표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에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9일 방사광가속기 유치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7일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